

## 현장에서 본 미래지향적인 어촌·어항



박 성 우  
동해어업지도사무소장

### 어촌·어항의 여건 변화

우리나라의 국민소득 및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국민들의 인식변화에 따라 어촌은 수산물 생산·유통하는 어업전진기지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도시와는 차별화되어 볼거리와 먹을거리를 제공함으로써 머물고 싶어 하는 공간으로 의식이 변화하면서 어촌마을 바닷가를 찾는 관광객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정부에서도 2000년도부터 어항의 기반시설 확충과 더불어 어촌어항의 기능을 다변화하는 것으로 「다기능어항 및 어촌·어항 복합공간 조성」등 관광객들의 눈 높이에 맞추어 관광수요를 충족하는 정책방향으로 변화가 있었다.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어업인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어촌은 도시와 비교하여 소득, 고용, 교육, 의료시설 등이 열악하여 젊은 인구의 도시 유출로 인한 어촌 공동화 현상이 진행되고, 국토개발의 불균형과 양극화 정도가 심화되고 있어 어촌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편, 수산업의 가장 중요한 기반시설인 어항은 유엔 해양법협약 발효와 수산자원감소에 따른 수산물 생산 감소 및 어선감축 사업에 의한 어선 감소 등으로 어항 개발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최근 주5일 근무제 정착 및 우리경제 발전에 힘입어 1인당 국민 소득 2만불 시대를 맞아 레저, 관광활동의 활성화 등 어촌·어항은 더 이상 어업인만의 거주공간과 수산업만의 어항공간에서 벗어나 어업인과 전국민이 더불어 활동하고 공유하여 국민의 품으로 돌려줄 수 있는 공간으로 새로운 어촌·어항의 정책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 어촌·어항의 개발방향 변화

기존 어항은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어업전진

기지 및 생산 활동 기지로서의 역할 등 수산업 중심의 생산 및 생활공간으로 어업인들만의 공간으로 인식되었으나, 최근에 국민소득 증가 및 국민들의 의식변화에 맞추어 단순한 어업적 성격을 벗어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어촌지역이 휴양·휴식 공간, 레저·관광공간, 수산물 생산공간 등 복합적인 역할을 원하고 있다.

과거 수 십년 동안 이러한 역할을 위한 정부 정책이 어항개발을 중심으로 꾸준히 추진되었지만 지역간의 나누어 먹기식 분산투자과 어업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에 국한되었으며, 최근 들어 일부 어항에 대하여 「다기능 어항 및 어촌·어항복합공간 조성」 등을 통하여 관광 어항으로서의 변화를 꾀하고 있으나 국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효과를 보지 못한 것 또한 사실이다.

이제는 미래지향적이고 시대의 변화에 맞출 수 있는 어촌·어항의 개발이 필요하다.

## 거점어항에 대한 집중투자

교통망의 다변화 및 발달에 따라 공간적·시간적 장벽이 약화되어 어촌의 핵으로 지역사회의 중심기능 역할을 수행하는 거점어항에 대한 집중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아울러 주변어항의 특성을 강화하여 사업 효율성을 배가 시킬 수 있는 주변 어항과의 연계성 강화로 수산업 여건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거점어항을 중심으로 특성화가 가능하고 어항을 중심으로 어촌, 어장과 연계강화로 인프라 투자비용의 절감이 가능할 것이다.

## 어항의 브랜드화

우리나라의 전국 각지에 있는 어항은 그 지역에서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이나 특성을 가지고 발전되어 왔다.

이러한 지역 특성을 살리고 특성에 맞는 테마어항 개발을 통해 그 지역의 특성을 브랜드화하는 것이다. 어항의 기본 기능은 유지시키면서 유통가공형, 유어납시형, 자원조성형, 레저형 등으로 특성화 하고, 또한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한 강구항(경북 영덕)의 대게, 법성포(전남 영광)의 굴비 등 일반 국민들의 인지도가 높은 지역특산물을 활용하여 어항의 브랜드화를 추구함으로써 지역 어업

인들에게는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기존의 어항들도 좀 더 친숙한 이름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 글을 맺으며

미래의 어촌·어항은 국민들에게 새로운 생활의 활력소를 줄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이자 휴양·휴식 공간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해양레저와 어촌관광에 대한 관심과 참여 증가에 따라 해양레저 시설 및 관광시설 확충과 더불어 녹색성장 정책과 맞추어 생태계 보존 또한 중요한 개발정책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자연 생태계를 보존하는 개발이야말로 미래지향적인 어촌어항 개발 방향이고 미래 후손들에게 어촌·어항 바닷가를 삶의 터전이자 마음의 고향으로 여길 수 있도록 지금의 개발 방식이 중요한 역할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에 따른 우리의 책임 또한 중요함을 인식하고 모두가 공감하는 활력이 넘치는 어촌, 아름다운 어항으로의 미래지향적인 개발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